

“40여년 화업 변천사 시민과 공유하고 싶어”

한국화가 남리 허임석 작가, 18년간 거주한 동명동 공간에 '남리갤러리카페' 개관

한국화·서양화 구분없는 회화세계 구축관심
일상 속 인간 존엄성·감정 표현한 작품 눈길
15일 개관식 갖고 1-2층 최근작 30여점 전시

남리(南理) 허임석(58) 작가의 작품을 들여다보면 '따뜻함'이란 단어가 떠오른다. 그의 최근 작업에서는 오롯이 '인간'이 중심을 이룬다. 마을 사람들이 웅기종기 모여 새삼을 먹고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잔디밭에서 자유롭게 뛰놀고 있다. 다람쥐를 보고 신기해하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으로 남기는 모습, 뚝배기 바지를 입고 배추를 뽑고 있는 사람들, 파라솔을 펴고 낚시를 하는 사람들 등 일상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 모두가 그의 작품 소재가 된다.



오는 15일 광주 동구 동명동에 문을 여는 '남리갤러리카페'의 2층 전시장 전경. 남리 허임석 작가의 최근 작품이 자유롭게 내걸려 있다. /박범순 기자

진도 출생으로 광주지역에서 40여년간 작품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화가 남리 허임석 작가가 최근 광주 동구 동명동(동계천로85번길 15)에 갤러리를 열고, 오는 15일부터 손님 맞이한다.

“어린시절부터 붓을 잡았고, 대학시절부터 지금까지 40여년간 그림을 그려 왔습니다. 이제는 이 그림들을 창고에 쌓아 두기 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죠.”

갤러리가 들어선 공간은 그가 18년간 가족과 함께 산 건물이다. 이전에는 동명동사무소로 활용됐었다고 한다. 1년여간 리모델링을 거쳤고, 1층은 차를 마시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카페로, 2층은 전시장과 작업실을 갖추고 있다. 3층은 거주 공간으로 사용된다. 공간의 이름은 그의 호를 따 '남리갤러리카페'라 이름붙였다.

“사실 이 공간은 예전부터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예요. 최근

동명동 카페거리가 활성화되면서 오랫동안 이 곳을 지켜왔던 주민들은 떠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된 상황입니다. 이 곳에 18년간 살았던 주민으로서 자발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 갤러리를 열게 됐습니다. 누구나 와서 차를 마시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죠. 언젠가 와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품세계도 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허 작가의 작품세계를 한자리에서 관찰할 수 있다.

진도 윤림산방의 뿌리를 이어받은 허 작가는 사군자, 문방사우, 서예, 문인화 등 전통 한국화의 기법부터 탄탄하게 갖춘 작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2년간 스승의 집에 들어가 숙식하며 도제식 교육을 통해 전통 산수를 배웠으며, 이후에는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에 입학, 동국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하는 등 제도권 교육도 두루 섭렵했다.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현대적 구성이 가미돼 전혀 다르고 새로운 작업세계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화와 서양화의 구분이 없는 작업을 하고 있죠. 수묵의 선은 최대한 살리고 그 위에 채색하는 기법입니다. 예전에는 자연주의의 전통 산수풍경만을 그려 왔다면, 최근 10여년간은 인물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의 존엄을 생각하고, 표정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죠.”

남리갤러리카페 개관을 기념하며 허 작가는 오는 15일부터 갤러리 1-2층에서 최근작 30여점을 선보인다. 인간의 감정과 표정을 해학적인 필치로 그려낸 것이 특징이다.

“2011년 신세계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 이후로 최근작을



남리 허임석 작가는 남종화의 전통과 현대적 미감의 조화를 추구하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작가가 자신의 작품세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선보이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옛것과 요즘 것이 자유롭게 어우러진 제 작품을 감상하고, 이 공간에서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한편, 허임석 작가는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 동국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6회의 개인전과 300여회 이상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2001년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 2004년 대한민국 서예대전 특선, 1993년 광주시전 대상, 1992년 전남도전 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정겨울 기자

‘나에게 바나나가 온다’

박희정 첫 개인전...내일부터 갤러리 관선재 개관기념展

너른 잔디에 대형 바나나 한 개가 무심히 놓여 있다. 170cm 높이의 색노란 대형 바나나는 어린아이들의 미끄럼틀처럼 보이기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긴 의자처럼 보이기도 하면서 어른들의 동심을 자극하기도 한다.

조각과 회화 작업을 통해 작품세계를 구축해 오고 있는 박희정(47) 작가가 자신의 첫 개인전을 연다. ‘나에게 바나나가 온다’를 주제로 하는 이 전시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갤러리 관선재(동구 공동 61-2)에서 열린다. 관선재 개관기념전으로 열려 의미가 있다.

‘바나나’는 작가에게 남다른 의미였다. 바나나가 구하기 힘들고 매우 비쌌던 어린 시절, 무척이나 바나나를 좋아

했던 박 작가는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바나나를 소재로 작품을 제작했다. 바나나는 희망과 행복, 휴식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작품 소재로 적합하다는 게 작가의 설명이다.

FRP 소재를 활용한 대형 바나나 작품 외에도 브론즈, 고홍석, 황등석 등을 주재료로 한 조각 13점을 선보인다. 여체와 여인상 등에 작은 크기로 붙여 있는 바나나의 형상들이 눈길을 끈다.

박 작가는 다채로운 색을 사용해 초현실적이면서도 자유분방한 필치의 평면회화 17점도 함께 선보인다. 자신과 주변인의 일상, 삶의 과정들을 상상력으로 풀어낸 것이다.

회화작품에는 물고기, 새, 고양이, 개, 꽃, 나무, 집, 눈, 자동차, 잠자리,

나비, 손, 사람 등이 공존하고 있어, 마치 일종의 숨은그림찾기처럼 보인다.

박희정 작가는 전시에 앞서 “오랫동안 작품전을 갖고 싶었지만 육아와 가사,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쉽지 않았다. 첫 개인전은 작가로서의 새로운 도전”이라며 “전시를 준비하며 수도 없이 마음 졸였지만, 앞으로는 작가로서 자유롭게 독자적인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을 맞이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박희정 작가는 전남대 예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하고, 전남조각회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작 레지던스전 등 단체전에 참여했다. 광주시미술대전,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전국대학미전 등에서 수상했으며 현재 전남조각회·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



박희정 작 '바나나, 바나나'

이다. 조형물과 어린이 놀이터용 장비를 제조하는 ㈜편의 대표로, 각종 조형물과 초상조각을 제작했다.

전시 개막식은 10일 오후 6시 갤러리 관선재에서 열린다. /정겨울 기자

‘홀로코스트와 음악 나치 희생자의 음악’

광주시향 11일 음악학자 최유준·이경분 초청 음악회

홀로코스트와 음악의 관계를 조명하는 음악회가 열린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오는 11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GSO TALK, 홀로코스트와 음악, 나치 희생자의 음악'을 개최한다.

음악과 대화가 있는 광주시향 'TALK 시리즈'의 첫 번째 공연에서는 파벨 하스(Pavel Haas), 한스 그라사(Hans Krasa) 등 현대음악가의 곡들을 만난다.

이들 작곡가들의 공통점은 오로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나치의 손에 죽어가야 했던 음악가들이다. 홀로코스트에 의해 희생당한 음악가들의 작품을 조명하고 죽음의 경계에서 그들이

왜 마지막까지 음악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전남대학교 최유준 교수가 진행 및 연출을 담당하며, '잃어버린 시간 1938-1944', '프로파간다와 음악', '나치독일의 일본 프로파간다' 등의 책을 쓴 음악학자 이경분이 대담자로 나선다.

그밖에 소프라노 김혜선이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이 부르던 기대온 클레인(Gideon Klein)의 '자장가'와 루디 게겔(Rudi Gegael)의 '수령의 병사들' 노래를 광주시향과 함께 연주한다. 티켓 1만원, 관람 8세 이상(미취학 아동 불가). /정겨울 기자

지금 사면, 지금 배송! 프리미엄 배달대행 서비스 VROONG(부릉) 함께 일할 가족을 찾습니다.

가맹점·전업기사 모집 (오치동,삼각동,일곡동,매곡동,용봉지구)

- 고정비는 줄이고 배달매출은 상승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절세 효과
- 주소 입력이 필요 없는 편리한 부릉POS연동
- 배송 전 과정을 책임지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는 배송 라이더 브랜딩
- 유연한 자동 배차 솔루션 보유
- 주변 상권 분석을 통한 상점 컨설팅 제공

대한민국 대표 인터넷 네이버가
최대주주로 투자한
우량 중소기업 VROONG



네이버 최대주주

부릉일곡지점 지사장 최영철

☎ 제후문의 1800-8255

☎ 문의 010-5807-0758

광주 대인동의 문화공원 김넛과

카페
식음료, 카페갤러리, 아트상품 전시 & 판매

아트호텔
전객실 회화전시 / 장기숙박할인(음식조리가능)
지하갤러리(55평), 2층(75평) 전시, 상설공연, 도서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음악콘서트(저녁 7시 30분)
최대 100여명 사용가능



☎ 김넛과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52-2번지
전화번호 : 062-229-3355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